

도서관에서의 - 교수 학습 지원 활동
외국의 사례 ②

그림책으로 이렇게 해보았어요!

최지혜*

학교도서관에서의 사서교사의 역할사례 글을 모집한다는 《도서관문화》 편집실의 광고 글을 보고 나는 망설였다. 왜냐하면 나의 경우는 학교 사서의 역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의 한글학교에서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경우인지라 오히려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문을 두드린다.

나는 1999년 2월에 '인포어린도서관 본부'에서의 근무를 마감하고 남편 따라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 거기서 '파리한글학교'에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구성원을 맡아서 2002년 6월까지 3년 동안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다.

특이한 경우라는 것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구성원의 문제였다. 혼혈아와 순수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이나 되었으며, 한글을 제대로 알

지 못하는 아동이 3분의 1은 되었다.

처음에 나는 초등 2학년~3학년¹⁾을 가르치게 되었다. 혼혈아의 경우 부모 중 어머니가 한국분인 경우는 그래도 한글을 조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국분인 경우는 한글 수준이 유치원생보다 더 낮았다. 하지만 주재관 자녀나 유학생 자녀들은 한글수준이 아주 뛰어나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글교육의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나는 고민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린이 그림책을 연구했던 관계로 그림책을 통한 한글 공부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물론 체계적인 한글 공부는 하면서 매 회 그림책으로 그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림책은 읽어주면서 아이들은 그 그림책 속의 그림에 몰입하여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

* 삼풍석유 선임사서, aiaime@hanmail.net

1) 학제가 한국과는 달랐다. 학년 처음시작이 그 해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만 9세는 초등 2학년 2학기 교과서부터 3학년 1학기를 배우게 된다.

치는데 그 효과를 본다. 실제 3년 동안 나이와 학년은 매 해 달랐지만 한글공부에 있어서 그림책을 통한 학습은 그 효과가 뛰어났다. 즐기면서 한글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여러 종류의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극과 그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 한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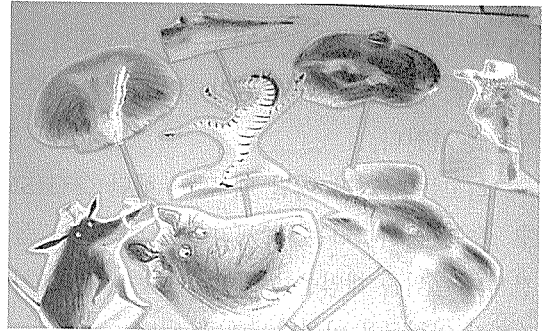
먼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마치 옛 이야기시 간처럼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그 날 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이때는 아이들이 그림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감정과 목소리의 변화를 주어서 재미있게 읽어 준다.



〈그림 1〉

내가 지금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은 『배꼽이 없어요!』(토니 로스 그림. 진 윌리슨 글. 이상희 옮김/웅진닷컴<그림 1>)으로 처음에 먼저 책을 읽어 주었다. 그리고는 “자! 여러분들은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하고 물었다. 여자 아이,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배꼽을 아주 자랑스럽게 내 보였다. 그럴 때 나는 한 아이, 한 아이씩 모든 아이들의 배꼽을 들여다보고 <와~ 아드리앙의 배꼽은 정말 멋있구나 !>로 확인을 시켜주어야만 했다. 그 과정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런데 선생님은 배꼽이 없어요 없어요?”하고 물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아이들은 일체히 나의 배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고, 무척이나 궁금하다는 그 눈망울을 나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자신감 있게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물론 정말 쑥스러웠다-멋있게 나의 배꼽을 보여주었다²⁾. 그리고 우리는 인형극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림 2〉

인형극에 필요한 자료는 인형극 용 스크린-작은 무대-(사과상자를 잘라서 만들어도 됨), 책에 나오는 각 동물들을 스캐너 떠서³⁾ 코팅하여 모양대로 오리고 뒤에 막대기를 붙여서 손잡이를 만든다. 그리고는 인형극을 실시하는데 주인공 꼬마는 장갑인형을 사용했다(<그림 2> 참조). 아이들은 실제 집중시간이 5분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인형극을 할 때는 목소리를 아주 힘있게 강약을 넣어서 흥미를 끌도록 해야한다. 책 내용에 나오는 동물들을 차례로 등장시키면서 배꼽의 위치를 질문도 하면서 기린, 고릴라, 사자.... 순으로 각 동물들의 스캐너 뜯 막대인형을 등장 시킨다. 그러면 아이들의 눈망울은 더 커지며, 초롱초롱 해집을 느낀다.

실제 책 속의 주인공 꼬마가 자고 일어나서 내 배꼽이 없어졌다는 장면을 인형극으로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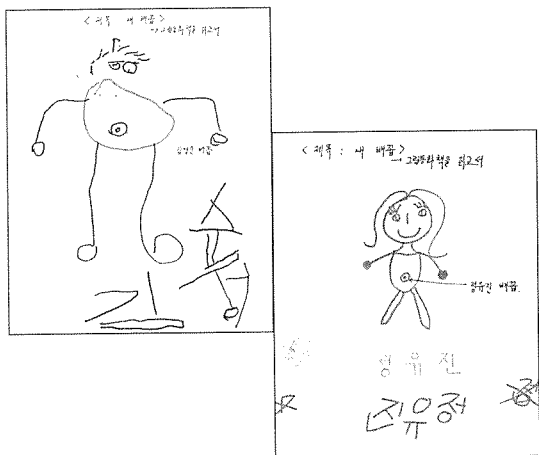
2) 이때 어떤 창피스러움이나 부끄럽다는 내색을 조금이라도 하면 신체의 귀중함을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사가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서교사는 적은 기회에 많은 것을 전해야하니 더 힘들지 않을까?

3) 책 속의 그림을 그대로 스캐닝하는 이유는 그림책을 보면서 하던 상상의 연장의미와 그림책을 더 잘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때는 어린이들의 배꼽이 있나 없나 확인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모든 아이들은 자기의 배꼽을 확인했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때 나는 아이들에게 이 배꼽은 아주 소중한며, 우리 엄마 아빠께서 주신 것이라면서 소중하게 간직 하길 강조한다. 그리고 인형극이 끝나면 성(性)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다.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 그 신체부위의 위치 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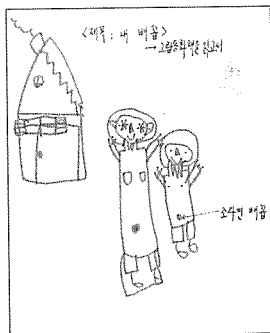
그리고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코코코코, 눈눈눈 귀! 하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몸 전체의 부위를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형극을 마쳤다.

이 인형극을 마치고, 게임까지 마무리 한 후 나는 각자 자기 자리에 아이들을 앉히고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A4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각자 자기의 배꼽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3)

<그림 3>에서 보듯이 각자의 배꼽을 그럴싸하게 그렸다. 이 시간에 자기의 배꼽을 그리는 작업은 모든 아이들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주 자



(그림 4)

랑스럽게, 재미있게 그렸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집-사물-에도 배꼽을 그려넣었다(<그림 4> 참조).

이렇게 『배꼽이 없어요』의 그림책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 인형극을 실제 실시한 후 입소문에 따라 나는 그때 유치원 두 학급과 초등 저학년 3급을 다 같이 모아서 큰 홀에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다시 인형극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교장선생님의 강력한 권유에 의했다. 이때는 교장선생님께서도 직접 참관을 하셨다.

먼저 책을 읽어주고, 인형극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나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배꼽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했다. 아이들은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대답이 엇갈렸다. 그래서 나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배꼽 있어요? 없어요?” 하고 직접 질문을 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는가? 교장선생님-참고로 교장선생님은 60대 할머니였다.-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아이들은 무척 궁금하다는 얼굴로 두 눈들이 교장선생님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대답은 “어~ 내 배꼽도 없어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때 교장선생님은 당신의 배꼽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을 어느 날 한 유치원생이 살며시 교장선생님의 옷깃을 당기면서 “교장선생님, 그런데 교장선생님 배꼽 찾으셨어요?” 하고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질문을 하더라. 그때 교장 선생님은 무척 놀라셨고, ‘그래 그때 그 상황을 피해 불려고 내가 아이들에게 괜한 거짓말을 했구나’고 생각하시면서 후회하셨다. 그 날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그래 교장선생님도 그림책의 그 친구처럼 배꼽을 찾았어, 고마워”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 한숨을 쉬면서 ‘이젠 안심이야’ 하는 얼굴이 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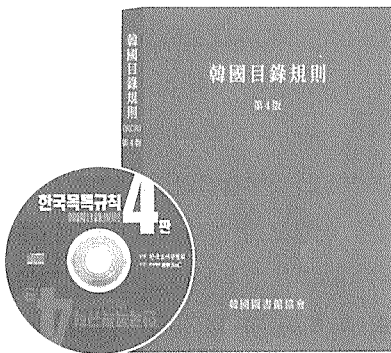
어떤 거짓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셨다. 아마도 그 아이와 다른 아이들도 나는 이렇게 멋있는 배꼽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배꼽을 잃어버려서 어찌나 하고 많은 걱정을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나는 지금도 그림책 강의를 나가면 그때 그 아이들의 걱정된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얇은 미소를 짓는다.

신 간

韓國目錄規則(KCR) 第4版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양장본/크라운국판/580쪽
 ISBN 89-7678-066-3(세트)
 정가 120,000원
 회원보급가 96,000원(CD-ROM 포함)

목 차

- 제0장 총칙
- 제1장 기술총칙
- 제2장 단행본
- 제3장 지도자료
- 제4장 고서와 고문서
- 제5장 악보
- 제6장 녹음자료
- 제7장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 제8장 전자자료
- 제9장 입체자료(실물)
- 제10장 마이크로 자료
- 제11장 연속간행물
- 제12장 점자자료
- 부록 1 : 약어표
- 부록 2 : 용어해설
- 부록 3 : 국명형식
- 부록 4 : 언어부호표
- 색인 찾아보기

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